

**전일동향**

전일대비 9.20원 상승한 1,439.0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9.20원 상승한 1,439.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70원 상승한 1,433.5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당국 경계감 속에서도 꾸준히 유입되는 저가 매수세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세에 상승하며 1,439.0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2.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8.92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3.50	1450.00	1427.00	1439.00	1434.90
엔화	916.07	918.92	914.94	918.92	-	
유로화	1686.26	1690.98	1682.70	1690.8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1	-5.27	-10.66
결제환율(수입)	-1.18	-4.15	-8.62	-15.9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저가 매수세 유입에...1,44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39.00) 대비 2.00원 상승한 1,439.4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거래량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실수요 저가매수에 상승 예상된다. 12월 말 1,480원 안착을 시도하던 환율은 고강도 구두개입, 실개입 추정 매도세에 1,440원까지 하향 안정화됐다. 이에 수입업체 결제를 비롯한 달러 실수요 주체의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시장에서 주를 이루며 오늘 환율 상승 압력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환율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실업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1.6만 건 감소한 19.9만 건으로 예상치 22만 건을 하회했다. 이에 미 국채 수익률은 2년물 2.30bp 오른 3.473%, 10년물 5.50bp 오른 4.179%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차익실현 움직임 속에 기술주 부진 이어지면서 다우지수 -0.63%, 나스닥 -0.76%, S&P -0.74% 마감했다.

다만, 위안화 강세 압력 확대, 수출업체 추격매도 유입은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37.00 ~ 1448.33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768.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00원 ↑
	■ 美 다우지수 : 48063.29, -303.77p(-0.6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6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051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